

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숲 속에서 쉬고 오는 기분은 어떨까요?

요즘 회사 건물 옥상에 나무와 꽃이 있고 넷물이 흐르는 쉼터를 만드는

회사가 늘고 있습니다.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지칠 때마다 이

회사 직원들은 회사 옥상의 작은 숲을 찾습니다. 컴퓨터 화면이나 서류가

아닌 꽃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. 넷물에 발을

담그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눈에 띄니다.